

비가림 재배시 정식시기에 따른 여주의 성분함량 변화

이나결^{1*}, 김영석², 류수노¹

¹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업생명과학과

²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서론]

여주는 국내에서도 소비확대 및 소득작목으로 육성이 기대되는 작물로서 재배작형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정식시기 개발과 수확시기에 따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정 정식시기에 대한 구멍이 미비하여 과잉 생산 시기에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주 비가림재배시 정식시기를 달리하여 정식시기에 따른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여 성분이 가장 풍부한 수확시기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품종은 ‘드레곤’을 이용하였으며, 육묘는 육묘전용 상토(홍농바이오)를 이용하여 32공 플러그트레이(서울농자재)에 파종하였다. 본 포장에 엽수가 3~4매 정도 자란 묘종을 정식시기를 달리하여 각각 2015년 6월 5일, 7월 5일, 8월 5일에 3회에 걸쳐 정식하는 3처리구로 하여 비가림하우스에 정식하였다. 여주의 유인방법은 원줄기를 적심처리하고 아들줄기를 4개로 유인하여 재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개화후 성숙일수에 따른 여주 과실의 Vitamin C, Momordicin, K, Mg의 성분은 개화 후 수정 7일차에서 74.7mg/100g으로 일수가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항당뇨 성분인 Momordicin은 개화후 7일차에 수확한 과실에서 개화 후 14일차에 수확한 과실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반면 Ca성분은 과실의 수확시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여주과실의 기능성 성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겨 수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저자: Tel. 02-3668-4630, E-mail. cguide99@naver.com